

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제2벤처붐의 활용방안

〈목 차〉

- I. 제2벤처붐의 도래와 의의
- II. 국내 벤처생태계 현황 및 문제점
- III. 제2벤처붐의 효과 극대화 방안

I 제2벤처붐의 도래와 의의

▶ (현황) 세계적 벤처 창업 및 투자 급증으로 제2벤처붐 거론

-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발달, 각국 정책 등에 힘입은 세계적 기술창업 및 벤처투자 급증세로 '00년대 초에 이어 제2벤처붐 도래
- (세계) 미국·영국 등 선도국 비롯, 주요국의 '14년 벤처투자 큰 폭 확대
 - 미국 : '14년 벤처투자액 483억달러(전년비 61%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
 - 영국 : 런던 ICT 벤처기업 수('10) 5만개 → ('13) 9만개로 76% 증가¹⁾
 - 아시아 : 일본은 '13FY('13.4~'14.3) 벤처투자액 전년대비 60% 증가²⁾,
중국은 '14.3분기 인터넷 업종 VC·PE 투자액 전년대비 290% 증가³⁾
- (국내) 창조경제 관심고조와 함께 벤처펀드 조성액 사상최대치 기록⁴⁾
 - 벤처기업 수(개) : ('98) 2,042 → ('01) 11,392 → ('15.1) 30,053

* 본고는 조윤정 선임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1) 영국 런던 테크시티 IR 자료('1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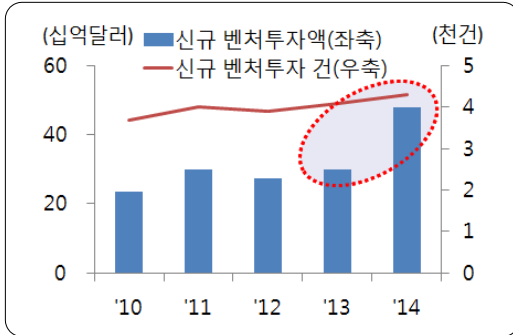
2) 일본 Venture Enterprise Center('14.11), "VEC Venture News Quarterly Trend"

3) 차이나매거진('14.12), "황금기 맞은 중국 벤처투자 업계"

4) Venturein 벤처통계시스템('15.2), 중소기업청('15.1)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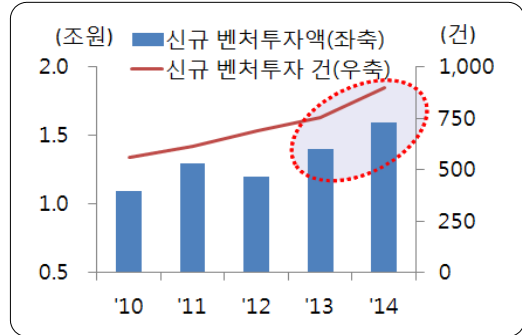
- 벤처펀드 조성액(억원) : ('10) 15,899 → ('14) 25,382(사상최대치)
- 신규 벤처투자액(억원) : ('10) 10,910 → ('14) 16,393(14년내 최대치)

미국 벤처투자 규모 추이



자료 : NVCA('15.1)

국내 벤처투자 규모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15.1)

▶ (배경·특징) 모바일·융합기술 진화, 글로벌 M&A 확대 등에 기인

- 제2벤처붐은 배경, 대상 산업, 참여 주체 등에서 제1벤처붐과 차이

제1,2벤처붐의 배경 및 특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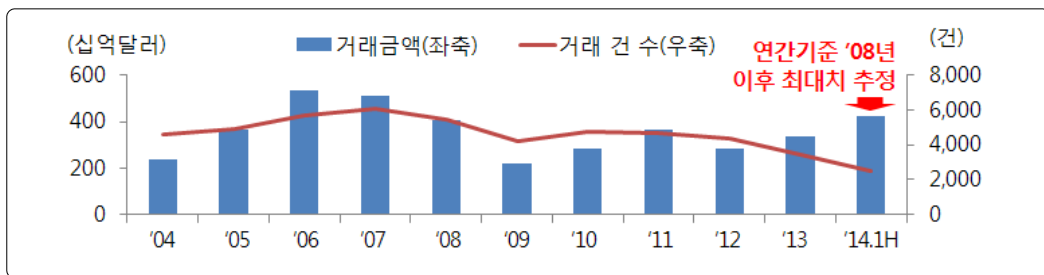
구분	제1벤처붐	제2벤처붐
시기	'00년대 초	'10년 이후
배경	기술적 ICT 및 인터넷 기술 혁명	모바일, 융합 기술의 진화
	非기술적 - 벤처기업 금융지원 확대 - 벤처기업 투자 열풍	- 글로벌 대기업의 경쟁적 M&A - 주요국의 벤처 활성화 정책
대상 산업	ICT 산업 중심	ICT, 바이오, 에너지 등 광범위한 첨단산업
대상 국가	미국, 유럽, 한국 등 ICT 산업 선도국 중심	벤처 선도국 비롯, 중국, 인도 등 범 세계적
참여 주체	정부 주도 하에 벤처기업, 일부 금융기관 참여	정부, 벤처기업, 금융기관, 대기업, 민간 전문기관 등 다양화
대표 벤처	해외 facebook, YouTube, 안드로이드	UBER (우버), (샤오미) (에어비앤비), airbnb
	국내 MEDISON, N1-N1, DdM	KAKAO, com2, s, coupang

주 : 1) 우버, 에어비앤비는 스마트폰에 기반해 각각 유희차량과 공간(집)에 대한 공급자-수요자를 연결해주는 공유경제 기업. 시장에서는 양 사의 기업가치를 각각 45조원, 11조원으로 평가
2) 컴투스스 게임빌과 더불어 국내 대표 모바일게임 제작사

자료 : 산업은행

- 제2벤처붐은 글로벌 ICT 업계의 경쟁적 M&A, 주요국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
기조 등 非기술적 동인이 크게 작용
 - ICT 업계가 혁신 수단으로 벤처 M&A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유망기술 보유
벤처의 지적자산 가치 극대화에 유리한 환경 조성
 - '14년 세계 ICT 업계의 M&A,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로 추정
 - * '14년 상반기 기준 M&A 금액, 건수 각각 전년비 299%, 10% 증가

세계 ICT 업계의 M&A 추이



자료 : 블룸버그, KPMG('14.9)

- 특히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거대 ICT 기업의 벤처 인수 중 최근 2년 내 비중이 30%를 상회해 M&A에 적극적인 행보 시사
- 국경이 모호한 ICT 산업 특성상 크로스보더 벤처 M&A도 급증

주요 글로벌 ICT 기업의 벤처 M&A 현황('15.2월 현재)






기업	벤처 M&A 건 수(누적)	특징
Google	전체 176, 최근 2년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 내 인수 비중 31% • 非ICT 벤처 인수도 활발
Apple	전체 63, 최근 2년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 내 인수 비중 35% • 역외 벤처 인수 비중 27%
facebook	전체 52, 최근 2년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 내 인수 비중 37%

주 : 구글은 '01년, 애플은 '88년, 페이스북은 '05년부터 실적 집계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산업은행 작성

- 국내를 포함해 세계 주요국 정부의 경제성장을 위한 벤처 활성화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벤처 창업·투자 확대 촉진
- 전통적 벤처 선도국인 미국·유럽뿐 아니라 최근 중국 등 신흥국도 활발한 벤처 정책 추진

주요국의 최근 벤처 활성화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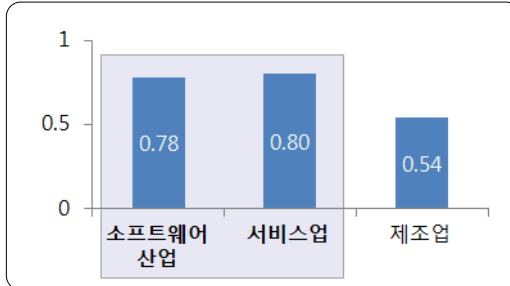
국가	내용
	'벤처·창업활성화대책'(13.5),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14.3), 범정부 차원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창업·투자 활성화 대책 포함
	벤처기업의 자금접근성 확대 위한 'Small Business Jobs Act'(10), 'Startup America Initiative'(11), 'Jump Start Out Business Startup Act'(12) 등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09)에서 벤처기업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 제시
	아베노믹스의 3대 성장전략 중 하나인 일본 재흥플랜의 중점 추진전략에 민간투자 활성화와 벤처투자 촉진 정책 포함(14.2)
	청년 창업지원 정책(13), 경제성장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벤처 창업 및 육성을 위한 '중창공간(衆創空間) 발전정책'(15.1) 등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15.3), 정보통신산업진흥원(14.2), 중소기업청(15.1) 등을 참고해 산업은행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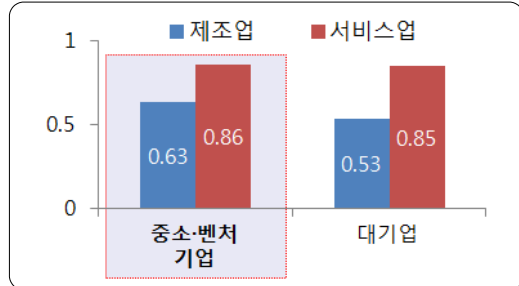
▶ (기대효과) 제2벤처붐은 산업활력 제고 및 기반 고도화의 기회

-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산업구조의 전환 및 대·중·소·벤처기업간 균형성장 촉진
 -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의 산업에 적합한 중소·벤처기업의 확산은 높은 부가가치를 유발
 -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서비스업(0.80), 소프트웨어산업(0.78), 제조업(0.54) 순
 -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중소·벤처기업이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에서 대기업을 상회
 - 대기업과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재편 및 균형성장 촉진

국내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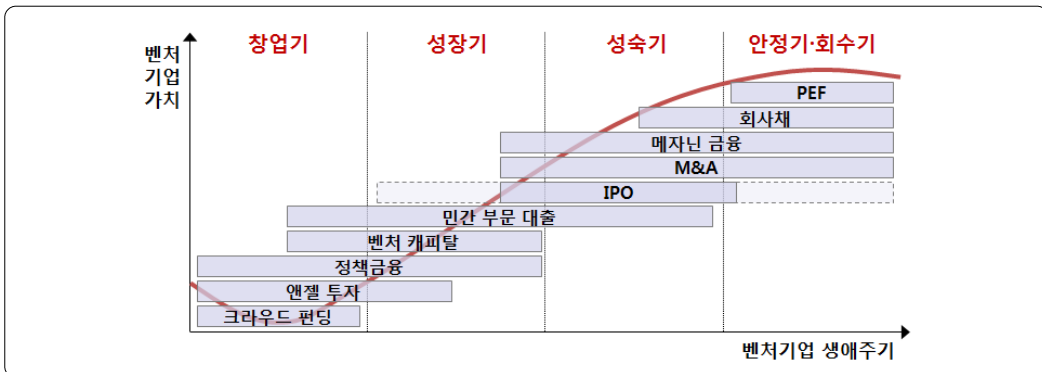
국내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유발계수



주 : 1) 부가가치 유발계수(0~1)는 해당 분야에서 최종수요의 1단위 발생 시 유발되는 부가가치
 2) 산업별 부가가치는 '12년,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0년 기준
 자료 : 한국은행('14.6),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14.10), 산업연구원('14.12)

- (자본시장 활성화) 벤처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수단의 다양화로 자본시장 확대 및 자금흐름의 선순환 유도
 - 벤처기업의 창업-성장-성숙-회수 단계별 특징에 맞는 다양한 금융수단의 활용으로 자본시장의 확대 기대
 - 특히 벤처금융의 모험자본 역할 강화, 유가증권 시장의 상향구조(코넥스⁵) → 코스닥 → 코스피) 확립 등은 자금의 선순환에 기여할 전망

벤처기업의 생애주기별 주요 금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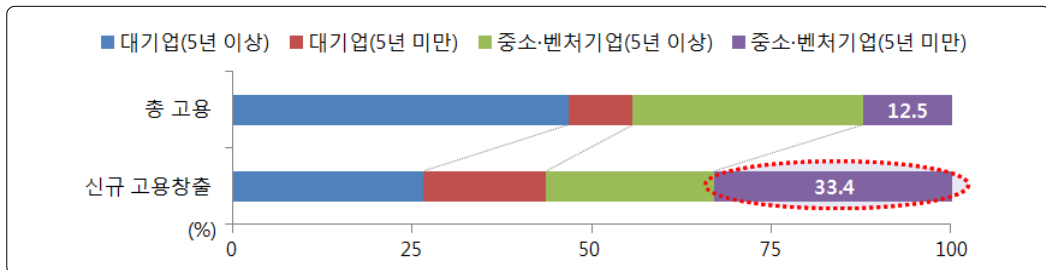


주 :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후원·대출·투자 등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 메자닌(Mezzanine) 금융은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모두 지닌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을 의미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13.9), OECD('06)

5) 코스닥 상장 요건 미충족 기업의 상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13.7월 개장

- (고품질 일자리) 신규 고용창출 및 전문인력의 역할 확대 촉진
 - 중소·벤처기업이면서 업력이 짧을수록 총 고용 비중은 낮지만 신규 고용창출 효과는 높은 편
 - OECD 국가의 경우, 신생 중소·벤처기업의 총 고용 비중은 12.5%인데 신규 고용창출 비중은 33.4% 점유
 - 연구개발 기능이 강조되는 벤처기업의 증가는 고용조건이 양호한 전문인력의 고용 및 역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기업규모 및 업력별 신규 고용창출 비중(OECD 국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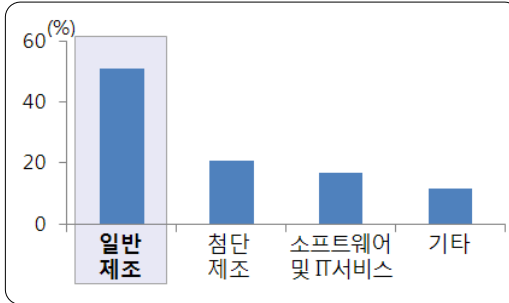


주 : 대기업은 종업원 50인 이상
 자료 : OECD('13.12)

II 국내 벤처생태계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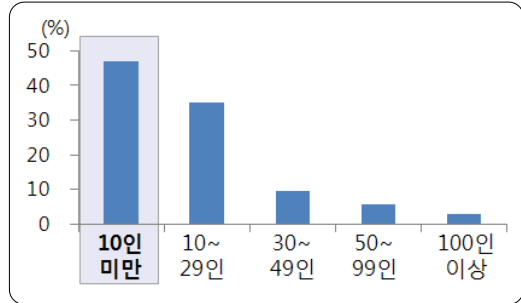
- ▶ (성장성) 창업·투자의 양적 성장 달성했으나, 질적 고도화 필요
 - (창업) 영세 제조업 위주로서 기회포착형 등 모험적 동기 부족
 - 국내 벤처기업 중 기계·소비재 등 일반제조 분야 비중이 51%인 반면, 첨단제조와 소프트웨어·IT서비스는 20% 미만
 - 종업원 수 10인 미만인 경우가 47%로 대부분 영세한 규모

국내 벤처기업의 산업별 분포



자료 : 중소기업청('1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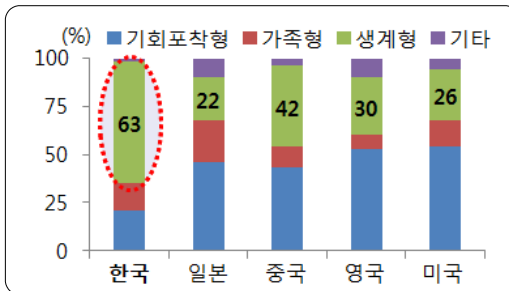
국내 벤처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분포



자료 : 중소기업청('1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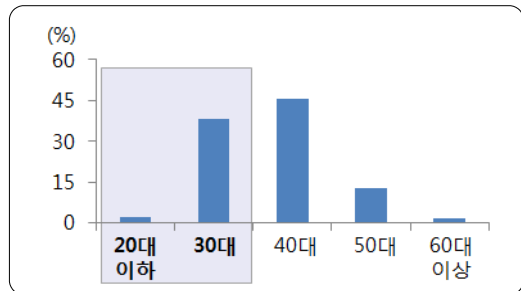
- 특히 해외 대비 사업기회 포착형 창업이 적고 청년층의 창업 활동 참여가 저조한 점이 벤처 창업의 질적 고도화를 저해
 - 생계형 창업 비중이 63%로 OECD 주요국 중 최상위권 수준
 - 청년층(20~30대)의 창업활동은 중장년층(40대~)에 비해 저조

주요국의 창업유형 비중 비교



주 : 기회포착형(Opportunity), 생계형(Necessity), 가족형(Family Business)
 자료 : OECD('14.5)

국내 벤처기업의 창업주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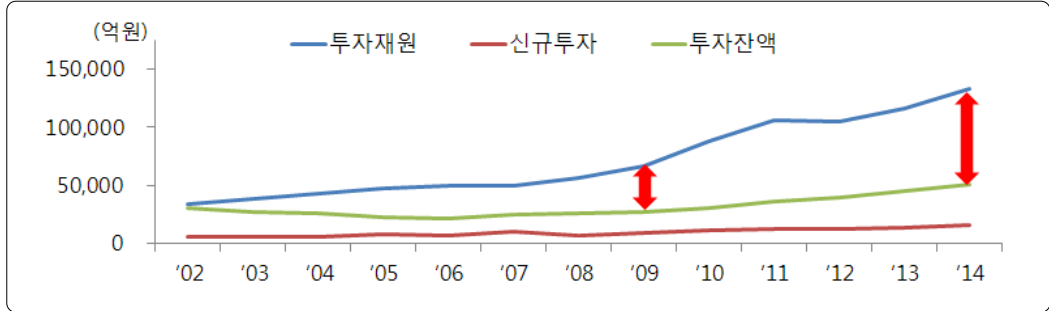
주 : 창업 당시 연령 기준
 자료 : 중소기업청('14.11)

- (투자) 자원 대비 실투자 미진, 첨단분야 및 스타트업⁶⁾ 투자 부족
 - 벤처투자 자원의 양적 성장은 달성했으나, 실제 투자 집행 미진에 따른 펀드 소진률 감소세로 드라이파우더⁷⁾화 우려

6) Startup : 대규모 자금투자를 유치하기 전의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

7) Dry Powder : 투자의 목적으로 모금되었으나 실제 투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투자 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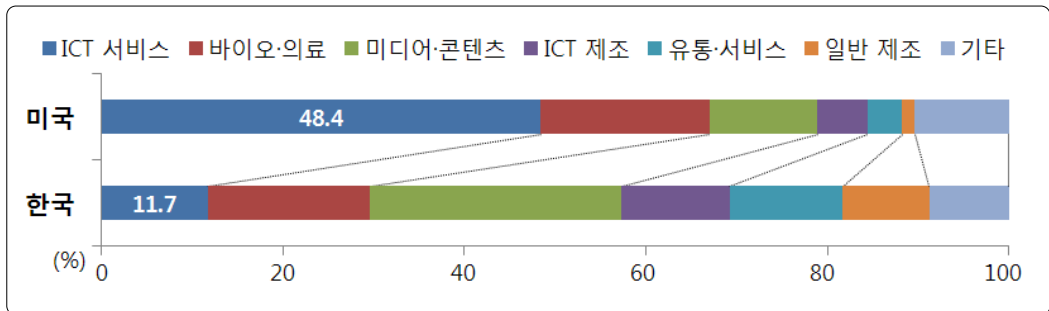
국내 벤처 투자자원 대비 투자액 추이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15.2)

- 산업별로는 제조업 주력 경향 여전, 첨단·융합산업 투자 저조
 - 융합산업의 핵심분야인 ICT 서비스에 투자는 12% 수준으로 취약하며, 해외 대비 첨단 분야에 대한 문샷투자⁸⁾ 미흡

한·미 벤처투자 산업별 비중 비교('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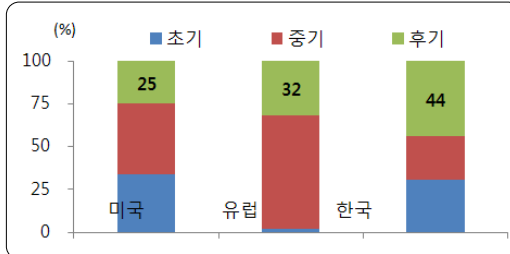


주 : 미국의 산업 분류기준에 따라 국내 산업별 벤처투자 실적 재분류
 자료 : NVCA('15.1), 중소기업청('15.1) 등을 참고해 산업은행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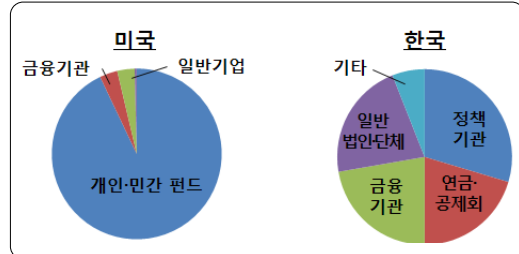
- 스타트업보다 단기간 내 투자회수 가능한 후기 벤처에 투자집중 경향,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 소극적

8) Moonshot : 달착륙과 같이 미개척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의미. 인공지능·로봇 등이 대표적 분야로 지목

국내외 벤처 업력⁹⁾별 투자액 비중



국내외 벤처투자 주체별 비중('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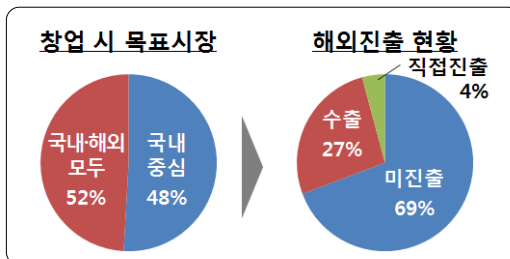


주 : 미국·한국은 '14년, 유럽은 '13년 기준 자료 : NVCA('15.1), 한국벤처캐피탈협회('14.9)
 자료 : EVCA('14.5), NVCA('15.1), 중소기업청('15.1)

▶ (국제경쟁력) 벤처기업은 내수 중심, 투자업계의 세계시장 영향력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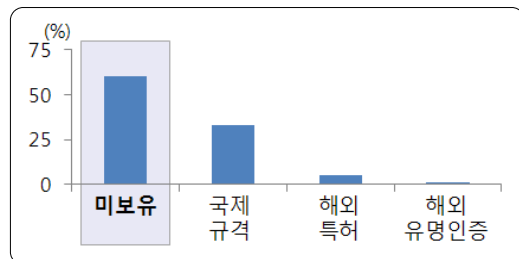
- (창업) 70%의 벤처기업이 내수 중심, 국제 수준 기술 확보 미흡
 - 창업 당시 의욕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 벤처기업 비중 31%에 불과
 - 해외 진출에 성공한 경우에도, 수출이 아닌 직접진출은 미미
 - 해외 특허 보유 벤처기업 비중 5.2%에 불과, 국제규격 인증 중심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현황('14)



자료 : 중소기업청('14.11)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특허 보유 현황('14)



자료 : 중소기업청('14.11)

- (투자)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의 세계시장 내 존재감 미흡 속, 최근 해외 자본의 국내 벤처투자 확대로 투자 기회 상실 우려
 - 벤처투자 상위 5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세계 벤처투자액의 87% 점유, 국내 업계의 점유율 1.6%에 불과¹⁰⁾
 - 자금력, 협상력 보유한 벤처투자 선도국의 세계시장 독식 가능

9) 국가·기관별 분류기준 상이. 국내(중소기업청)는 통상적으로 초기창업 3년 내, 중기-3-7년, 후기-7년 이상

10) OECD('14.6),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 최근 해외 자본의 국내 벤처투자 확대로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의 투자기회 상실 우려도 제기

해외 자본의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최근 투자 사례

유형	사례	
① 육성기관 설립	 (미)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 '구글캠퍼스' 설립('15.4)
	 (이스라엘)	'요즈마 스타트업 캠퍼스' 설립 예정('15 中)
② 벤처펀드 조성	 (미)	'코리아펀드(1,500억원 규모)' 참여 MOU 체결('14.9)
	 (이스라엘)	글로벌 투자자 중심 '요즈마펀드' 조성 예정
③ 지분 인수	 (중)	중소게임개발사 등 국내 기업에 약 7,300억원 투자

자료 : 해당 기업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산업은행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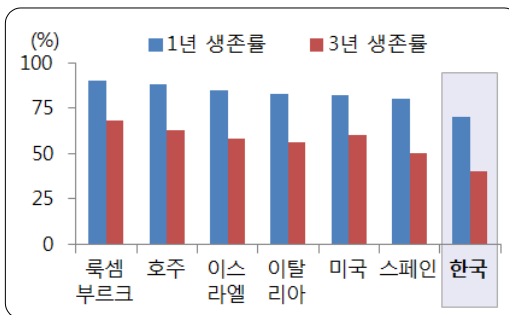
▶ (지속가능성) 벤처기업의 초기 정착 및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미흡

- (창업) 국내 벤처기업 생존률이 주요국 대비 큰 격차를 보여 벤처기업의 초기 정착 및 성장연계 미흡 시사
 - 국내 벤처기업의 창업 1년, 3년 후 생존률은 각각 70%, 40% 대로 OECD 주요국에 비해 취약
 -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미국 등 벤처 선도국 기업의 창업 후 3년 생존률이 국내 기업의 1년 생존률을 상회
 - 벤처기업의 중소·대기업으로 성장 연계도 미흡한 실정
 - 중소·벤처기업이 10년 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평균 7천개 중 1개사에 불과¹¹⁾

11) KDI('13.4), "창조경제 추진의 배경과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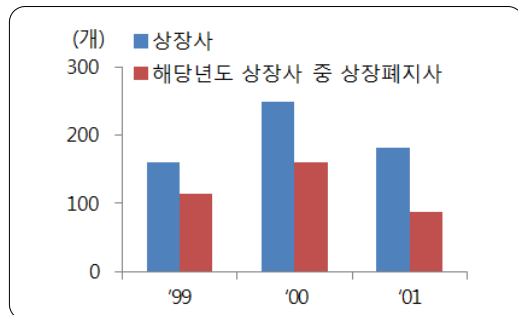
- (투자) 제1벤처붐 시 상장한 벤처기업 절반 이상이 상장폐지되어, 벤처투자를 포함한 벤처생태계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시사
 - '99년~'01년 중 코스닥에 상장된 총 591개 벤처기업 중 61.3%인 362개사가 상장폐지
 - 벤처생태계의 훼손은 벤처기업의 판로애로, 지속적인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

주요국의 신생기업 폐업률 비교



주 : 신생기업은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자료 : OECD('13,10)

제1벤처붐 시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추이



자료 : 한국거래소('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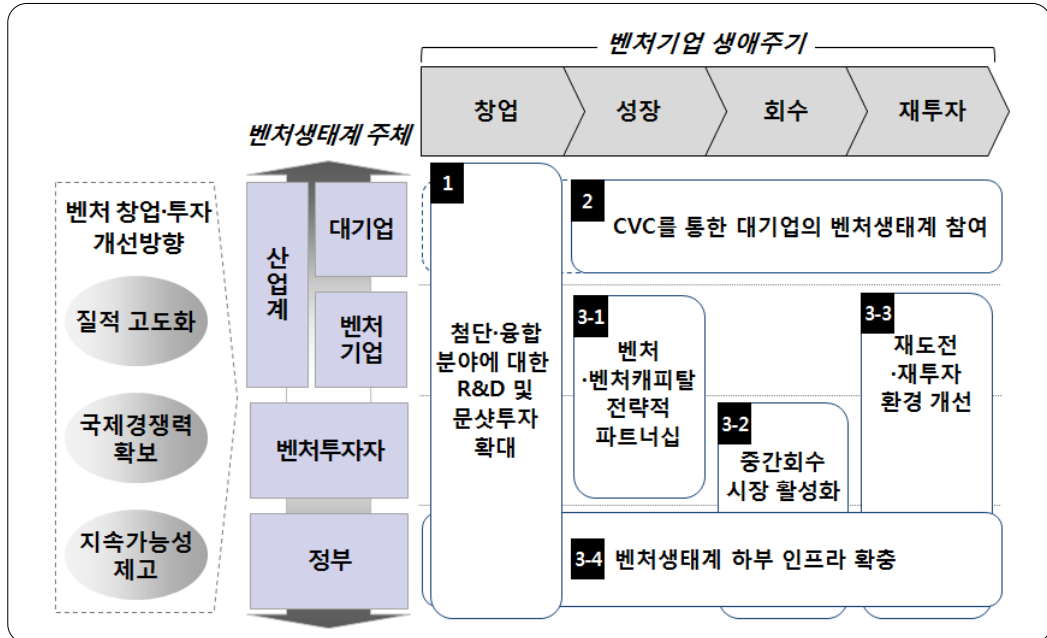
III 제2벤처붐의 효과 극대화 방안

▶ 국내 벤처생태계 문제점을 바탕으로 벤처붐 효과 극대화 방안 도출

- 제2벤처붐의 효과 극대화는 벤처생태계 주체간 동반협력과 병목 해소를 통한 벤처 생애주기의 원활한 순환을 전제
 - 이스라엘 등 해외 벤처 선도국의 경쟁력은 산업계·금융권 정부의 전략적 공조에서 비롯
 - 국내 벤처기업 생애주기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투자회수, 재투자 분야의 병목 해소 필요

- 국내 벤처 창업·투자의 질적 고도화, 국제경쟁력 확보, 지속가능성 제고 관점에서 산업계, 벤처투자자, 정부의 과제 도출

제2 벤처붐의 효과 극대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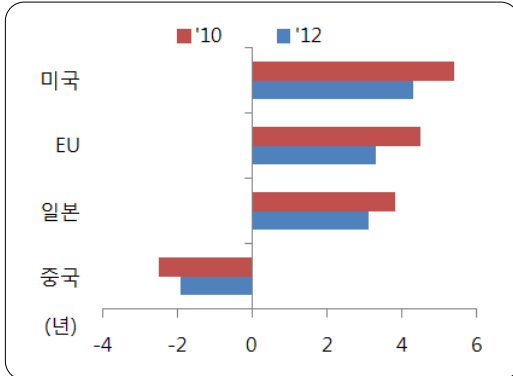
자료 : 산업은행

1. 유망 분야에 대한 R&D 및 문샷투자 확대

▶ (벤처기업) 첨단·융합 분야 기술경쟁력 확보 위한 R&D 강화

- 국내 기술경쟁력은 선도국과 격차 여전, 후발국 추격으로 입지 불안정
 - 기술 격차는 미국에 4.7년 뒤지고 중국에는 불과 1.9년 앞섬
 - 항공우주, 에너지·자원 등 일부 첨단분야는 중국보다도 열위

한국과 주요국간 과학기술 격차 추이



자료 : 한국과학기술평가원('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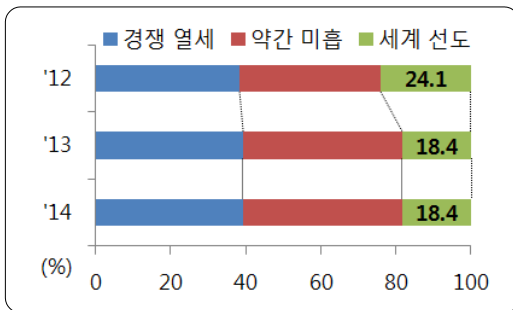
첨단 분야의 한 중 기술격차 현황

한국의 대응 열위 기술	격차(년)
우주발사체 개발	7.2
우주감시시스템	6.1
우주비행체 개발 및 관제운영	4.5
미래형 유인항공기	3.8
자원탐사	2.0
자원개발처	1.5
지능형 무인 비행체	0.8
차세대 가속기	0.5
생명시스템 분석	0.2
지열	0.1

자료 : 한국과학기술평가원('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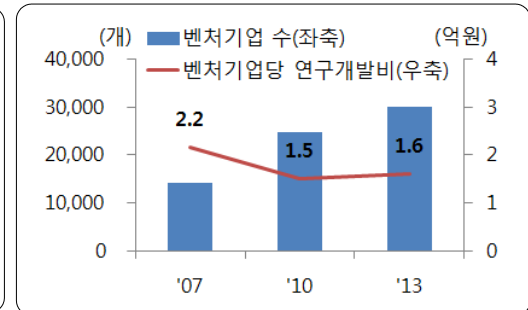
- 특히 국가 기술경쟁력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개선 시급, 이를 위해 R&D 활동 및 인력 전문성 강화 필요
 - 국내 벤처기업의 상대적 기술경쟁력은 점진적 하락세
 -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 불구, 기업당 R&D 활동은 둔화

국내 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14.11)

국내 벤처기업의 R&D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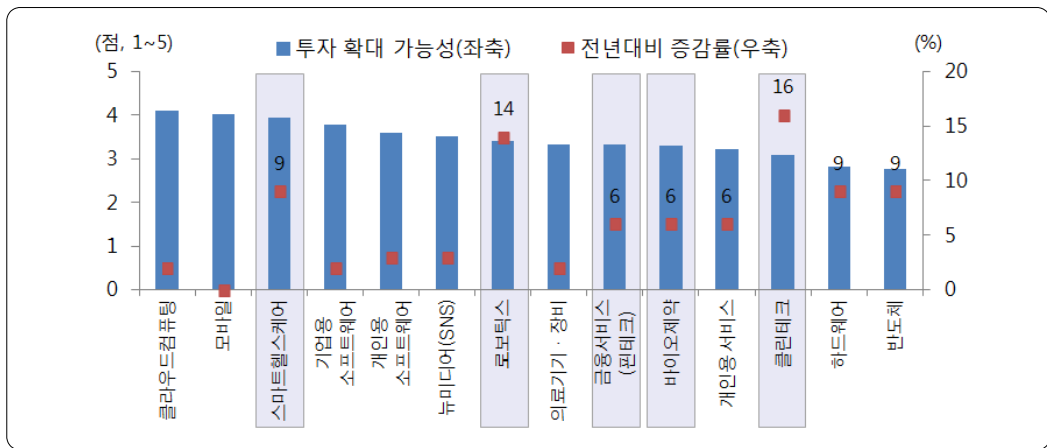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4.12), 중소기업청('14.11)

▶ (벤처투자자) 투자 업종 포트폴리오 다변화, 미래 유망기술 선별역량 강화로 모험자본 역할 강화

- 투자 업종 선정 시 해외 선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방향 참고 가능
 - 해외 선도 벤처캐피탈 업계는 스마트헬스케어¹²⁾, 로봇틱스¹³⁾, 핀테크¹⁴⁾, 바이오제약, 클린테크¹⁵⁾ 등을 유망 투자분야로 지목

세계 주요 벤처캐피탈 선정 미래 유망 투자분야



주 :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20여국의 벤처캐피탈 대상 설문조사 결과. 5점 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투자 확대 가능성 높음
 자료 : Deloitte, NVCA('14,8) 등을 참고해 산업은행 작성

- 업체 발굴·평가에 대한 역량 강화 위해 미래 기술동향의 상시 모니터링, 엑셀러레이터¹⁶⁾ 등 외부 제휴·활용 검토
 -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미래 유망기술 동향의 지속 탐색¹⁷⁾

12) Smart Healthcare : 스마트기기 등과 원격 의료기술을 활용해 시간·공간 제약 없이 건강관리가 가능한 기술
 13) Robotics : 로봇(Robot)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센서, 인공지능, 초미세가공기술 등을 포함하는 기술
 14) Fintech :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결제 등 IT에 기반한 금융 기술 및 서비스
 15) Cleantech : 에너지·자원 소비를 줄이면서 오염물질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새로운 환경 기술
 16) Accelerator : 창업자 발굴과 사업화를 위한 교육·멘토링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기관이나 기업. 대상 벤처기업의 경쟁적 선발, 짧은 보육기간(3~6개월),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참여 등이 인큐베이터(Incubator)와 차별적
 17)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 등은 미래 유망기술을 정기적으로 선정. 상세내용은 불임 참조

- 벤처기업 발굴·평가에 외부 엑셀러레이터, 기술평가기관 제휴·활용
 - 특히 엑셀러레이터는 최근 해외에서 유망 벤처의 초기 발굴 모델로 부상(미국 Y-Combinator의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지원사례 등)
 - * '05~'15.3월 중 전세계 엑셀러레이터가 발굴한 벤처기업 4,465개 중 247개 회수 완료. 회수가치는 펀딩액(72억달러)의 47%에 육박¹⁸⁾

국내외 주요 엑셀러레이터 현황

해외(전세계 2,000개 이상)	국내(20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Y-Combinator('05~), TechStars('06~), 500Startups('10~) 등 • (유럽) Seedcamp('07~) 등 • (이스라엘) IDC Elevator('11~) 등 • (싱가포르) JFDI.Asia('10~) 등 • (일본) MODIVA Japan('09~)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전문기관 주도형) 프라이머('10~), K-Startup('13~), 패스트트랙아시아('12~) 등 • (대기업 주도형) KT, SK플래닛, 넥슨, 네오위즈, 포스코, 한화S&C, 현대자동차 등이 엑셀러레이터 운영 • (정부 주도형) 중소기업청의 '창업기획사'

자료 : 중소기업청('14.3), 정보통신정책연구원('14.11)

▶ (정부) 신성장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 강화

- '15년 국내 벤처투자액 1.8조원으로 전망, 이 중 정부 자금은 사상최대 규모인 0.8조원(전년비 49% ↑) 투입 계획¹⁹⁾

국내 벤처투자액 전망

(단위: 억원)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F)	'17년(F)
12,608	12,333	13,845	16,393	18,000	19,800	21,700

자료 : 중소기업청('15.1)

- 유망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민간투자 불충분 분야에 대한 관심 환기
 - 19대 미래성장동력 등 유망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지속

18) 미국의 벤처 창업·투자 관련 민간 데이터베이스인 Seed-DB 조회결과('15.3)

19) 중소기업청('15.2), "2015년도 벤처펀드 2조원 조성 및 제도개선 방안"

정부의 19대 미래성장동력

미래신산업	주력산업	공공복지·에너지산업	기반산업
지능형 로봇	스마트자동차	맞춤형 웰니스케어	융복합소재
착용형스마트기기	심해저해양플랜트	신재생 하이브리드	지능형 반도체
실감형콘텐츠	5G 이동통신	재난안전시스템	사물인터넷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수직이착륙무인기	직류송배전시스템	빅데이터
가상훈련시스템	-	초소형 발전시스템	첨단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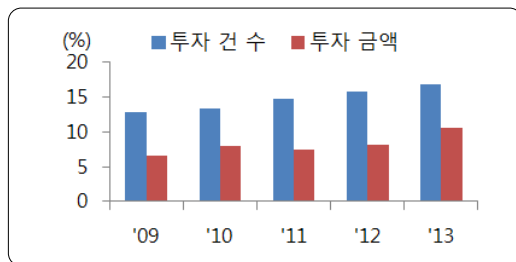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15.3)

2. CVC를 통한 대기업의 벤처생태계 참여

▶ 모기업의 전략적 사업연계를 위한 CVC²⁰⁾ 활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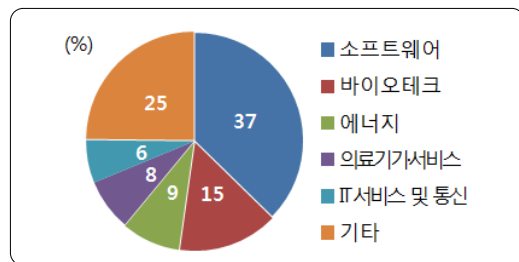
-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전략적 목적의 CVC 활용 증가
 - 특히 미국은 CVC의 벤처캐피탈 시장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상승, '13년에는 투자 건수와 금액에서 각각 17%, 11% 점유
 - 과거에는 ICT 분야 투자집중 경향, 최근에는 모기업의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해 바이오테크, 에너지, 의료 등으로 다변화

미국 CVC의 벤처캐피탈 시장점유율



자료 : NVCA('14.7)

미국 CVC의 산업별 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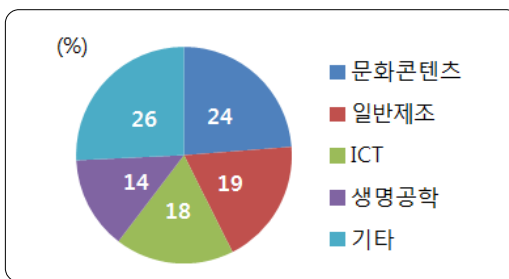


자료 : NVCA('14.7)

20) Corporate Venture Capital : 비금융권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로, 모기업 사업 연계 등 전략적 목적과 수익 창출을 위해 독립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수행

- 국내 CVC는 ICT 등 일부 분야 국한, 전략적 목적보다 수익성 주력
 - 국내에는 40여개 CVC 존재, 非ICT 기업의 참여 다소 소극적
 - 프로젝트성 투자비중 높고 장기적 관점의 첨단분야 투자 취약
 - 국내 ICT 업계의 지위에 비해 CVC의 세계시장 내 존재감 미미
 - 투자액 기준 세계 100대 CVC 중 국내 업체는 단 1개에 불과

국내 CVC의 산업별 투자 비중



주 : '10~'12년 누적 투자실적 기준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13.7)

세계 주요 CVC의 투자액 순위('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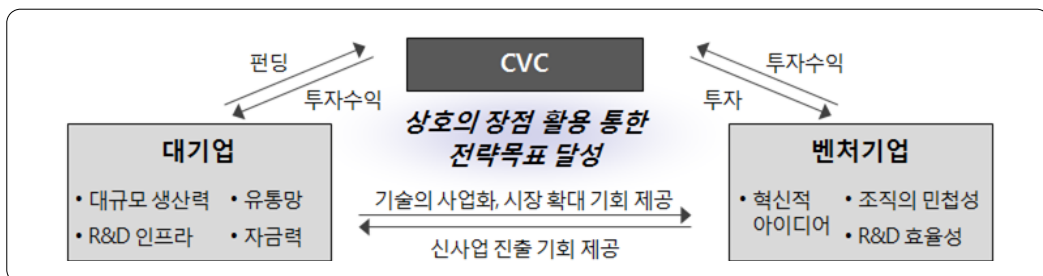
순위	모기업	순위	모기업
1	구글(미)	6	노바티스(스)
2	인텔(미)	7	삼성(한)
3	세일즈포스(미)	8	시스코(미)
4	퀄컴(미)	9	지멘스(독)
5	컴캐스트(미)	10	GSK(영)

자료 : CB Insights('15.2)

▶ CVC의 전략적 활용 확대로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에 민첩한 대응, 대기업·벤처기업 상호시너지 추구

- 대기업은 단기간 내 신사업 추진, 기술특허의 배타적 사용 가능
 - 특히 핵심 사업영역이 아닌 시장으로 진출할 때 효과적
- 벤처기업은 기술의 사업화 역량 및 안정적 사업파트너 확보

CVC의 전략적 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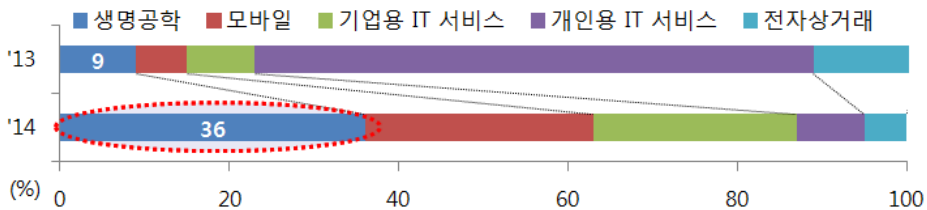


자료 : 산업은행

〈참조〉 구글벤처스의 최근 투자 동향 및 특징

- 구글의 CVC인 구글벤처스(Google Ventures)는 '09년 사업 시작 후 '14년까지 282곳에 투자, '14년 투자 규모는 약 4.3억달러로 추산
- 구글벤처스는 ‘파괴적 혁신’과 ‘투자이익’의 투자원칙을 견지함으로써, 타 CVC들의 후속 투자와 혁신기술의 조기 상업화를 견인
 - 익스펙트랩스(Expect Labs, 미국의 인공지능기반 채팅기술 업체)는 구글벤처스 투자 이후 인텔캐피탈, 삼성벤처투자 등의 투자도 유치
- 산업별 투자포트폴리오는 최근 생명공학 등 非ICT 분야로 다변화
 - '14년 최대투자 분야는 생명공학으로서 전년대비 투자비중 4배 증가

구글벤처스의 산업별 투자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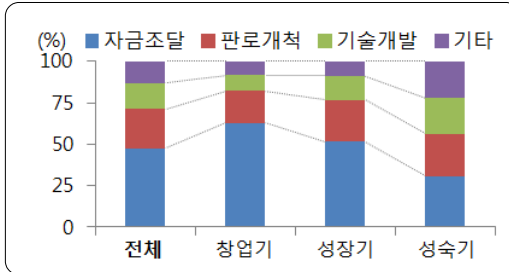
자료 : 구글벤처스 홈페이지, Wall Street Journal('14.12) 등을 참고해 산업은행 작성

3. 벤처 창업·투자 환경 개선

3-1. 벤처기업-벤처캐피탈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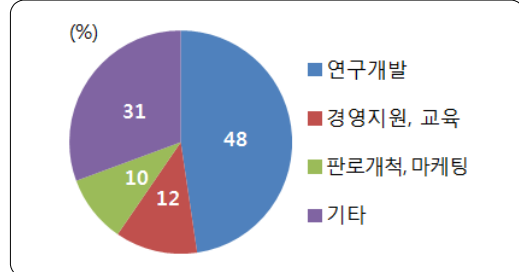
- 다수의 벤처기업이 판로개척 애로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의 해결을 위한 대외 협력활동 미흡
 - 벤처기업 경영애로는 자금조달, 판로개척, 기술개발·사업화 순
 - 기업 성장에 따라 자금조달 애로는 감소하나 판로애로는 심화
 - 벤처기업의 대외 협력활동은 대학 등과 연구개발이 48%로 최대 비중을 점유,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은 10%에 불과

국내 벤처기업의 경영애로



주 : 1) 벤처기업 302개 대상 설문조사 결과
 2) 창업기 5년미만, 성장기 5~10년, 성숙기 10년이상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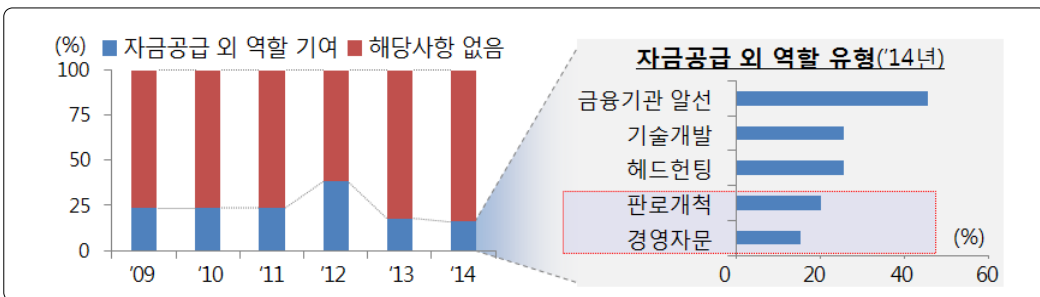
국내 벤처기업의 대외 협력 유형



주 : 2,098개 벤처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료 : 중소기업청('14.11)

-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역할도 자금공급 이외의 역할은 '14년 16%에 그쳤고, 그나마 점차 감소하는 추세
 - 특히 자금공급 이외 역할 중 판로개척, 경영자문 등이 취약

국내 벤처캐피탈의 자금공급 외 역할 추이



주 : 2,098개 벤처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료 : 중소기업청('14.11), KDI('14.10) 등을 참고해 산업은행 작성

- 해외판로 개척 등 벤처기업 생애주기별 애로 타개를 위한 벤처캐피탈의 전략적 사업 파트너 역할 요구
 - 과거 싸이월드(SNS), 다이얼패드(인터넷전화) 등의 초기 사업화 불구 시장정착 실패는 해외판로 개척 및 벤처 지원 미흡 등에 기인²¹⁾

21) 관계부처 합동('14.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참고자료"

- 해외 선도 벤처캐피탈은 투자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자-벤처기업간 정보교류 행사 정례화 등 다각적 노력 경주
 - 이스라엘의 모태펀드인 요즈마펀드는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수 벤처기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판로개척에 기여
- 벤처캐피탈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외 지원 기능 확대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 산업 전문가 영입 등 추진

〈참조〉 소프트뱅크캐피탈(일)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사례

- 소프트뱅크캐피탈은 투자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해외 투자자간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
 - 매년 ‘소프트뱅크 벤처스 포럼’ 행사 개최로 벤처기업과 국내외 투자자간 만남 정례화
 - ’13년에는 아시아지역 35개 벤처기업과 해외 투자자 참여
 - 투자 벤처기업의 성격에 따라 미국, 중국, 아시아 신흥국 등으로 해외 목표시장을 다양화

소프트뱅크 벤처스 포럼의 주요 프로그램



기조연설



핵심 이슈별 패널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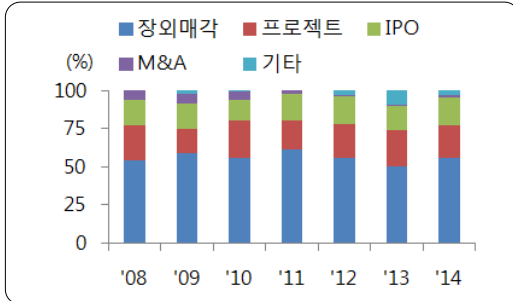
투자자-기업 네트워킹

자료 : 소프트뱅크캐피탈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산업은행 작성

3-2. 자금순환 병목 해소 위한 중간회수 시장 활성화

- 국내 벤처투자 회수는 장외매각과 IPO 의존도 높고 M&A는 미미
 - ’14년 국내 벤처투자 회수는 장외매각·상환 비중이 56.1%로 가장 높고, IPO는 18.0%를 기록, M&A는 2.1%에 불과
 - 이는 M&A를 통한 투자회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와 대조적
 - 미국·유럽은 M&A 비중이 90% 수준, 중국도 M&A가 절반 이상

국내 벤처캐피탈의 회수 유형 추이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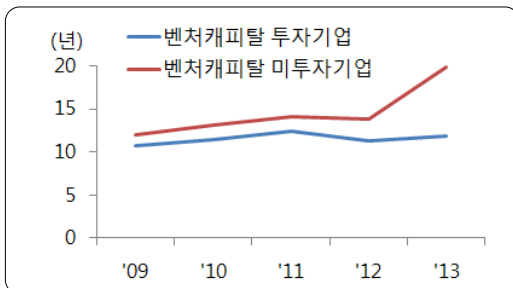
해외 벤처캐피탈의 회수 유형('14)

국가	M&A	IPO
미국	85.5%	14.5%
유럽	91.3%	8.7%
이스라엘	83.3%	16.7%
중국	57.1%	42.9%

자료 : Ernst & Young('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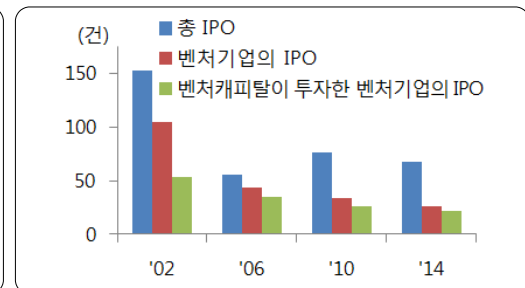
- IPO도 벤처투자-회수기간 불일치와 모험자본 흡수 경로로서 정체성 불분명, 규모 축소 등으로 회수시장 역할 수행 불충분
 - 벤처캐피탈의 평균 투자기간 5년, IPO까지 평균 소요기간 12년 이상으로²²⁾ 투자·회수 기간의 불일치 존재
 - 코스닥 진입규제 강화 등으로 IPO 소요기간 장기화 추세, 이는 벤처캐피탈의 초기벤처 투자 회피 요인으로도 작용
 - * 코스닥 IPO 소요기간 : ('05년) 9년 → ('13년) 12년 이상
 - 최근 우량 벤처기업의 코스피 이전, 상장유지 비용 상승 등으로 코스닥의 모험 자본시장으로서의 정체성 불분명
 - 과거 NHN 등 우량기업이 코스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동

국내 벤처기업의 IPO 소요기간 추이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15.1)

코스닥 시장 IPO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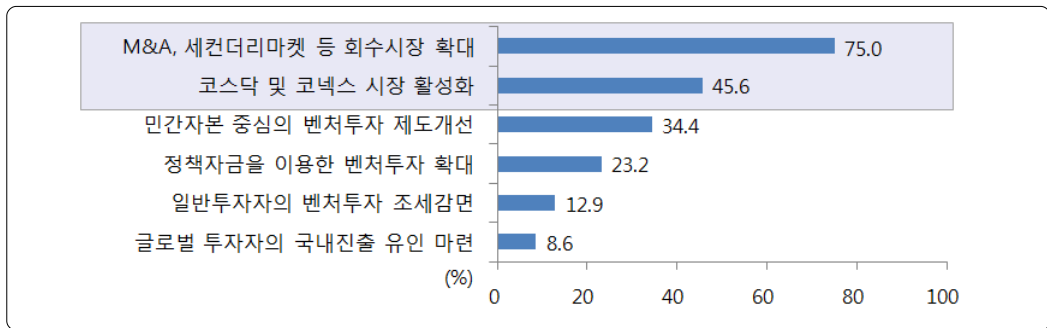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5.1)

22) 대한상공회의소('14.12), "벤처기업 경영실태와 정책과제 조사"

- 국내 벤처투자의 중간회수 시장 활성화 위해 M&A 및 세컨더리시장²³⁾ 확대, 코넥스의 조기 안착 등 필요
 - 업계 전문가 설문 결과, 국내 벤처금융 개선방안으로 M&A 및 세컨더리마켓 확대,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지목

국내 벤처금융 개선방안



주 : 국내 벤처캐피탈리스트 11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14.10)




- 해외 대비 특히 취약한 M&A 시장 기반 확대 위해 대기업의 M&A 시장 참여, 관련 규제의 정비(인력유인, 기술탈취 방지 등) 및 M&A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필요
- 더불어 코넥스 시장의 조기안착 및 유가증권 시장 내 역할 정립, 세컨더리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회수 시장의 다각화 모색

3-3. 재투자·재도전 기반 조성

- 1세대 벤처기업의 2세대에 대한 투자·육성 확대로 성공경험의 환류 및 신생 벤처의 실패 확률 축소 가능
 - 최근 국내 1세대 벤처의 2세대 벤처에 대한 재투자 확대 추세
 -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 재투자 펀드조성, 창업보육기관 운영·참여 등의 유형으로 추진
 - 이의 촉진을 위해 재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 검토

23) Secondary Market : 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구주나 펀드 출자자의 지분을 유통하는 시장(자본시장연구원, '13.7)

최근 국내 1세대 벤처의 2세대 벤처 투자·육성 사례

유형	사례	
① 앤젤투자		• 네오위즈, 다음, 이니시스 등 1세대 벤처 창업자가 '마이리얼트립(여행관련 벤처기업)' 등에 투자('12~)
② 재투자 펀드조성		• 중소기업청과 청년창업펀드 300억원 조성('13.4)
		• 중소기업청과 청년창업펀드 300억원 조성('13.6)
③ 창업보육기관 운영·참여		• 엑셀러레이터 '네오플라이' 설립·운영('08~) • '선데이토즈('애니팡' 제작사)' 등 발굴·투자
		• 게임 전문 엑셀러레이터 'NPC' 설립·운영('12~)

자료 : 해당 기업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산업은행 작성

- 창업 실패 부담 완화, 재창업 성공률 제고 위한 정책 추진
 - 기업 회생제도 유연화·간소화 등으로 창업실패 부담 완화
 - 1세대 벤처 창업가-스타트업 연계형 재창업 지원체계 도입, 재도전 지원 등 재창업 성공률 제고 정책 지속 추진

〈참조〉 일본의 산업재생특별법 사례

● M&A 등 기업의 사업재생 계획을 주무부처가 심사·승인하고, 기업에게 세제, 금융, 회사법상 절차 간소화 등 패키지 지원

- 한시법 제정('99) 후 연장('03.3 → '08.8 → '16.3限)

일본 정부의 기업회생 지원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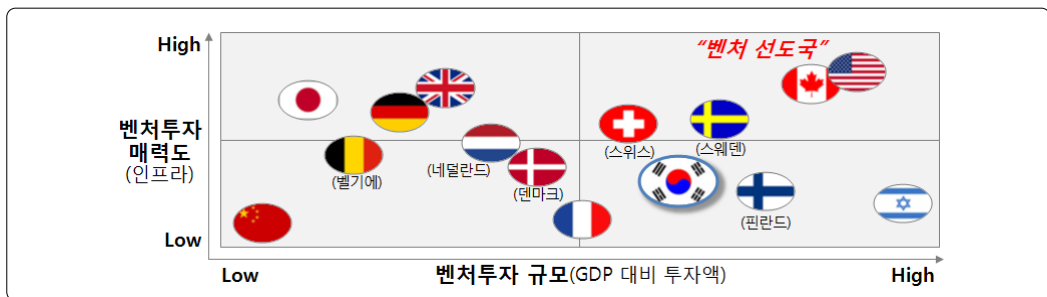
    graph LR
      A[신청<br/>(기업)] --> B[심사<br/>1개월]
      B --> C[계획승인<br/>주무부처]
      C --> D[계획<br/>공표]
      D --> E[계획추진<br/>및 지원]
      E --> F[매년]
      F --> G[진행보고<br/>(기업)]
      G --> H[종료보고<br/>(기업)]
      C --> I[계획변경<br/>신청·승인] --> E
    
```

자료 : 관계부처 합동('13.10),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3-4. 벤처생태계 하부 인프라 확충

- 국내는 벤처투자 시장 규모 대비 투자 인프라의 성숙도가 미흡
 - 국내 GDP 대비 벤처투자 규모는 OECD 국가 중 7위로 상위권이나, 투자 매력도는 17위(118개국 중)로 상대적 열위
 - 이는 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인적·사회적 환경 등 인프라 미흡에 기인

주요국의 벤처투자 인프라 수준 비교(*14)



주 : 1) 벤처투자 규모 - 각국의 GDP 대비 벤처투자액 규모(OECD, '14.6)를 1~15위로 순위화
 2) 벤처투자 매력도 - 주 1) 기준 상위 15개국의 자본시장 활성화, 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세제, 인적 역량, 사회적 환경 등 종합평가 결과(IESE, '14.6)를 순위화
 자료 : 산업은행

- 국내 벤처 인프라의 공고화를 위해 취약 분야로 지속 평가되는 투자자 보호, 인적·사회적 환경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개선
 - 세부 평가항목별 편차가 커 균형적 인프라 조성 필요성 시사
 - 특히 노동시장 경직성, 교육 및 인적자본, 재산권 보호, 창업 및 운영의 용이성 등의 개선 시급
 -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처별 벤처정책의 일관성·지속성 강화

국내 벤처투자 인프라 평가 항목별 순위(*14)

세부 평가항목	순위	세부 평가항목	순위
경제 활동 및 규모	5	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31
자본시장 활성화 수준	22	인적·사회적 환경	28
세제	21	기업가적 문화 및 협상 기회	9

주 : 세계 118개국 중 순위
 자료 : IESE('14.6)

【붙임 1】

세계경제포럼(WEF) 선정 '15년 10대 유망기술

- WEF는 매년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10대 유망기술을 선정
 - WEF(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는 '71년에 창립된 국제포럼으로 세계 주요국 정치·경제·산업계 지도자들이 참여
- '15년에는 로봇공학, 인공지능 등 ICT 융합 분야를 대거 지목

WEF가 선정한 최근 유망기술

'13년	'14년	'15년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신체적응 웨어러블 전기전자 기술	연료전지 자동차
3D 프린터	나노구조 탄소복합체	차세대 로봇 공학
자기치유재료	해수 담수화 과정 중 금속 채취	재활용 가능한 열경화성 고분자
정수 기술	전기 저장 그리드	정밀한 유전공학 기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나노선 리튬이온 전지	첨삭가공
영양소 전달 기술	스크린 없는 디스플레이	다가오는 인공지능
원격 인지장치 기술	인간 마이크로비옴 치료제	분산 제조업
약물전달 기술	RNA 기반 치료제	'감지와 회피' 드론
유기전자광전환 기술	자신의 정량적 기록, 분석	뉴로모픽 기술
4세대 원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디지털 계능

자료 : 세계경제포럼('15.3)

'15년 WEF 선정 유망기술의 상세설명

유망 기술		설명
1	연료전지 자동차 (Fuel Cell Vehic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소, 천연가스 등 연료를 이용해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자동차로 3분 충전 시 700km 운행 가능 특히 수소는 수증기만 방출하기 때문에 공해물질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로 각광
2	차세대 로봇 공학 (Next-Generation Robo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세대 로봇은 고성능 센서를 장착해 환경의 인지와 반응 가능, 인간의 손과 같은 유연성을 지니도록 발전 지루하거나 반복적인 일, 위험한 일 등 인간이 꺼려하는 일의 대체뿐 아니라 협업도 가능할 전망
3	재활용 가능한 열경화성 고분자 (Recyclable Thermoset Plas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음 가열 후 모양을 만들면, 이후 열과 압력을 받아도 모양과 강도가 변하지 않아 플라스틱의 재활용 가능 고분자를 단량체로 바꾸어 새로운 모양의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등 물질이 순환되어 쓰레기 감축 가능
4	정밀한 유전공학 기술 (Precise Genetic-engineering Techniq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밀하고 다양한 유전체 교정 기술을 통해 농작물 및 재배방식의 혁신 가능 물·토지·비료 등 자원의 투입량을 줄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기후에 작물의 적응력 향상
5	첨삭가공 (Additive Manufactu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 일부를 제거하거나 자르는 절삭가공의 반대로 액체·분말 등을 적층해 3차원 맞춤형 물체 제작 열·습도 등 환경변화에 반응해 형태의 변형 가능한 옷·신발, 자동차·항공·의학 등 분야에서 활용 기대
6	다가오는 인공지능 (Emergent Artificial Intellig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의 자가판단을 통해 인간의 감정에 의한 편견 및 판단 오류 축소 가능 인간의 노예화 우려도 있으나, 반대로 인간만의 창의력·감정·관계 등 가치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7	분산 제조업 (Distributed Manufactu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생산과정을 디지털 정보로 전환해 소비자 개개인의 요구와 선호도에 따라 물건을 주문 제작 자원의 효과적 사용, 생산설비 및 자본 부담 경감에 따른 시장진입 장벽 완화 기대
8	'감지와 회피' 드론 (‘Sense and Avoid’ Dro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회피하는 드론은 군사, 농업,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기대 사고 발생 시 의약품 운반 등 고위험 작업 수행 가능
9	뉴로모픽 기술 (Neuromorphic Techn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뇌 구조 모사 기술로, 데이터 저장·처리 기능을 동일모듈 내에 통합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연산 능력 향상 일기예보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 해석·전망 필요 분야에 활용 기대
10	디지털 게놈 (Digital Gen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 유전정보의 저장·전송기술로 환자의 유전정보에 기반한 명확한 진단, 표적치료 등으로 정밀치료 가능

자료 : 세계경제포럼('15.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15.3)를 참고해 산업은행 작성